
부정선거로 전광훈 정당이 졌다는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 독려하는 부정선거론자, 김문수 후보의 뿌리에는 역시 극우 전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전 목사의 기독교자유통일당을 비호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태극기 십자가 세력만 패배한 것이 아니” 라면서 뜬금없이 “불법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바깥에 계셨다면 이런 참패가 없었을 것” 이라더니 “감옥 가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는 투쟁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조차 모를 황당한 주장의 연속입니다.

당시 기독교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21번까지 냈지만 1.83% 득표에 그쳤습니다. 전 목사가 주도했으며, 엄마부대로 유명한 극우 주옥순 씨를 3번으로 내세웠고,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인사를 상위 순번으로 내세우는 등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이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책임진 당사자입니다. 극우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할망정, 부정선거로 몰아간 것이 김 후보의 실체인 것입니다.

김 후보는 이후에도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고, 법원 앞에서 블랙시위를 하면서 선거의 근간을 줄기차게 흔들어 왔습니다. 당장 지난 4월까지도 부정선거는 있다고 단언한 것이 김 후보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분이 대선에는 대체 왜 참여했습니까.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가 되고, 지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입니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전 목사와 함께 극우정당을 만들었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오늘까지 이른 것이 언론과 유튜브와 SNS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제와 김 후보가 말을 바꿔

도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질서를 공격한 세력이, 이제 다시 부정선거 주장으로 민주질서를 공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만이 답입니다.

2025년 5월 28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